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추억담(追憶談)

세월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청춘을 기도원에 바친 기도원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백발이 되었고, 세월만큼 어깨도 내려앉았다. 일이 버거운가 보다. 그런 그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짝하다. 그들의 형편을 내가 왜 모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결정했다. 기도원 집회 때면 무료급식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그러면 일손 달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내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타진코자 기도원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주변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반응이 내 예상과 아주 달랐다. 나는 ‘잘하셨습니다. 기도원 식구들도 이제 다 나이가 드셔서 힘들죠.’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목사님, 우리에게도 기도원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그 추억을 빼앗지 마세요. 식판에 맛있는 밥과 반찬을 받아서 먹는 재미, 식사 후 무료 커피 한 잔, 그리고 아침에 주는 토스트...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추억입니다. 기도원에서 영적 양식도 취하지만, 거기서 아름다운 식사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보충해놓겠습니다. 제발 우리 추억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들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기도원에서 주는 식사가 부실하다고 투덜댈 수 있다. 밖에서 사 먹으면 더 맛있을 수 있겠지. 그런데 줄 길게 서서 식판에 받아 먹는 기도원 밥이 추억이라니... ‘그래, 맞아! 우리 기도원의 무료급식에 대한 사연이 많지. 친정에 쉬러 왔는데 밥값 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시작했었어. 지금은 광주에서 대기업이 된 장로가 80kg 짜리 아끼바리쌀 200가마를 가져온 것에 내가 축복한 후로 지금까지 쌀 창고에 쌀이 떨어진 적이 없었지. 동해에서 잡은 생선을 싣고 오고, 집회 때마다 돼지를 수십 마리 보내고, 온갖 채소들을 트럭으로 싣고 오고...’

주마등처럼 37년의 세월이 내 앞을 스친다. 나는 즉시로 내 계획을 취소했다. 누구나 세월을 먹고, 세월과 함께 추억도 먹는 법,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지만, 잘산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란다. 당신에게는 어떤 소중한 추억담이 있는가?

한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고 살 아라”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대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대구엑스코집회를 성황리에 마치며, 누군가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집회 후 만난 대구교회 일꾼들은 준비하는 과정에 전날 밤까지도 너무 힘들고 눈물만 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두가 한가지 목표를 향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니 이런 은혜를 경험한 다며 코로나로 침체됐던 교회가 이번 집 회를 계기로 살아난다고 기뻐했다. 시도 한 결과다.

목사님은 엑스코 동관 4홀의 음향 상태와 처음 전도집회에 찾아온 참석자들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찾

오늘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나 역시 70을 넘었고 내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라도 한번 죽는 것 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오직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열면 처음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창1:1). 또한 하늘과 땅과 땅 의 식물과 육축,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기록 역시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이 죄를 지어 여자는 잉태의 고통이 따르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역시

비행기를 타면 미국 LA나 뉴욕에 도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천국에 도 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절대주권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 인 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부활 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 고 나의 구원자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 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천 국까지 데려가신다는 그분이 정하신 법 입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엄정한 법 앞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나의 재산과 목숨까지도 던지며, 전국과 전 세계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가운데 이제 나도 예수를 영접하



대구엑스코집회(2023년 6월 6일, 엑스코 동관4홀)

아가시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구전도집회를 허락 하신 것은 대구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 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 리까지 오게 된 것 역시 누군가 여러분들 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많 은 빌딩을 가지고 사업가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건물 에 교회를 두 개나 세로 주었었는데, 그분 들이 건물주인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 는지 오늘날 내가 목사가 되어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죽음 다음 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 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런 법이 어디 있 느냐고 따지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도 민법, 형법, 상법, 교통법이 있듯이, 아니 당장 이 엑스코 건물에도 정해진 법이 있 어서 그 법을 따라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들어가려면 비자를 받 아야 하는 게 미국법입니다. 우리가 비자 를 받고 비행기표를 끊어 인천공항에서

고 천국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오늘 결단한 여러 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아 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주시 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글지글 타는 지옥문은 닫히고, 영생과 복락의 천 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한 서울 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찾아와 헌신 봉사 해준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의 이름으 로 감사를 드린다.

한은택 목사



대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다



대구엑스코 동관



예수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롬10:9~17)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제일 아름답다

“이 땅에 있는 자동차를 다 가진 것보다, 이 땅의 모든 부동산을 다 가진 것보다 한 영혼이 값지고 귀합니다.”

이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남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말입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50주년 기념대회에서 ‘영혼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저는 그 기념대회를 보면서 생각이 깊었습니다. 50년 전, 빌리 그레함 목사는 여의도 광장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닷새간이었습니 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뿌려진 복음이 누군가를 변화시켰고, 누군가를 움직이게 했고, 더는 누군가를 주의 종으로 만들어 점차 십자가의 물결이 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켰습니 다.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수출국, 즉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사람으로 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미래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자가 지혜롭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치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어느 마을에 집배원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횡랑하기만 한 길에 코스모스 씨를 뿌렸습니 다. 그저 씨를 던지고 지나갔을 뿐인데, 이듬해가 되니 온 마을이 코스모스로 만발하여 아름다워지고, 그곳이 명소가 되어 경제적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놀랍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제가 지구를 150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로 나가 하루 이를 전한 복음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 힘은 대단합니다. 그 집회로 인해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목회자들이 변화되니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사니 성도들이 살고, 성도들이 살아나 전도하니 지역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됨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마다하지 않고 지구 반대편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9월에 페루 집회에도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

을 믿습니 다.

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 다. 기업들이 광고에 주력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세일즈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계를 누비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 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롬10:14~15).

예수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 까? 냉장고가 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무리 좋 아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십 년이면 고장 나고 구형이 됩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퇴색하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10년, 20년 보상받고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물론이요, 죽어서까지 보장을 받습니 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 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내 가정, 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 다. 가족들 사랑하시죠? 내 친구, 내 이웃 귀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글지글 타면서도 죽지 않는 지옥, 전갈이 쏘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지옥, 탈출구가 없는 지옥, 그런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모르니까 알게 해야죠. 인간은 영존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고 알려줘야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야죠.

제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은 저의 아버지를 구원 못한 것입니다. 제게 많은 재산을 넘겨주신 우리 아버지였지만, 정말 평생 법 없이도 사셨던 좋으신 분이였지

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도할 때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했을 텐데요.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이런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시기는 지금입니다. ‘내일 하지’ 하다가는 늦습니 다. 왜냐면 사람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르시면 아무 때나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는 물론이요, 결혼식장에서도, 사우나에 가서도 전하는 겁니다. 들고 안 들고는 그 사람 자유입니다.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나는 이초석 목사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서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해야 할 일, 그것이 사명(使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현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사명이라 하신지 않으셨습니 다. 오직 복음 전파, 전도하는 일을 ‘사명’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사명은 완수하지 못하면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까지 내놓고 사명을 이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고전9:16).

그 화가 된 줄 압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

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숫군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겔33:2~4).

여러분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를 물으신답니 다. 전하지 않으면 피 값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엽포를 놓으신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좋은 복음을 전하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보다 귀하니 까요. 그래서 성경은 힘주어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찌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잠24:11~12).

소경이 벼랑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막아야지요. 자동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면 달려가 그 아이를 건져내야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면 마땅히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지요. 누군가 그랬습니 다. 빌어먹더라도 천국은 가야한다고요. 그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나만 가도 좋지만, 전도하여 많은 자를 이끌면 그 나라에서 별 같이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포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

죽음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천국은 계급사회입니다.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 영원히 누리는 곳입니다. 상 중에 전도 상이 가장 큼니 다. 열 고을의 왕권,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할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할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집안이 왜 화목하지 않을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한 마디가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국가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발걸음이 제일 아름답습니 다.

우리, 사명에 부도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대외경제의 실용적 접근

가계 단위의 인위적인 소비 및 투자 창출을 위해 도입된 다양한 금융상품들은 가계부채(전세보증금 포함) 규모가 GDP 대비 156.8% 수준에 이르도록 하였고, 만일 지속적으로 가계 혹은 개인 소득이 성장하지 않거나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될 시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무역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 말 기준 무역 누적적자가 472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점 대비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수입 부문 중 산업 중간재가 5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50%를 중국에 의지하고 있기에 현재의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한은 총재는 최근 저성장의 해결책은 재정통화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노동, 연금, 교육 부문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는데, 정부가 구조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확정적으로 보장해준다면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경쟁력도 크게 개선되어 산업 다각화는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비용 및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5년간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 선도자, 그리고 추격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동일한 역할을 중국 내수시장에서도 반복해 오면서 양국의 경제를 현재까지 성장시켜왔습니다.

중국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 지향에서 벗어나 서구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최저 소비자 가격 실현을 최대 목표로 체계화된 중국 상품의 공급망구조는 내부 경쟁을 통하여 중국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고, 특히 1950년대부터 구축되어온 중국식 특유의 산화연대에 기반한 연구개발 생태계는 현재보다 더 폐쇄적으로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권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60년대 초부터 80년대 중반 사이 각종 경공업과 전자제품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거점을 확보하도록 해주셨고, 대내적으로는 중공업을 비롯 각종 산업 인프라까지 구축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대적한 중국은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양질의 인적 및 물적 자산들을 훼손하고 진부화시킬 때 방치하였고, 그들이 깨달았을 때 대한민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번영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자신이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그만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념이 아니라 가장 실리적이고 적합한 길로 열어주실 것을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윤석

:: 오늘의 메시지 ::

생각을 바꾸라

우산을 파는 아들과 소금을 파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늘 걱정이 태산이다. 비 오는 날에는 소금장사 아들이 걱정이고, 맑은 날에는 우산장사 아들이 걱정이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한 사람이 말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네요. 날이 좋으면 소금장사 아들이 잘돼서 좋고, 비가 오면 우산장사 아들이 잘돼서 좋으니 부럽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깨달아 걱정이 없어지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생각의 차이이다. 행복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기록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다(롬8:5~7).

또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며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히11:1).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인식의 변화에 힘을 다하자. Change(변화)의 ‘g’를 ‘c’로 바꾸면 Chance(기회)가 된다. 변화 속에 기회는 오는 것이다. 목사님은 ‘변화가 두려우면 현실에 만족하며 살라’, ‘고착된 사고의 틀을 깨라’고 강력하게 교훈하신다. 간질에 걸린 아이의 아버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을 바꾸어, “내가 믿나이다 도와주소서” 간청했더니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깨끗이 나았음을 기억하자. 지금 내 현실은 내 생각의 결과다. 생각을 바꾸라. 현실 너머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나의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이제 다시 뿔 수 있다!

이 작품은 달리던 명마의 부러진 발목과 깨진 항아리를 강력 접촉제로 붙여 고쳐진 항아리에 물을 담아 명마에게 물을 마시고 다시 뛰라는 메세지의 작품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뛰면 됩니다!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제50주년 기념대회



6월 3일, 오후 3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제50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

정확히 50년 전인 1973년,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 광장에는 하루 백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기록에 의하면 닷새 동안 320만 이상의 인원이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필자는 당시 중학생으로 그 전도대회에 참석했었다. 기억으로는 인파의 물결이 끝이 없었고, 여의도로 가는 차편도 별로 없었던 터라 한강대교를 걸어 광장에 갔던 기억이 남아 있다.

이 집회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래함

목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복음화에 기틀이 되었다.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결신했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것은 도화선이 되어 삼천리 곳곳마다 십

자가 물결이 일고, 교회에서는 새벽기도며 철야예배가 시작되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더불어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를 생각하자니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오버랩된다. 50년 전의 우리나라처럼 시설이 낙후되어 도중에 마이크가 나가고, 비바람으로 단상의 휘장이 날아가고, 많은 인파들이 쏠려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더 심하게는 위협과 모함이 와도 꾀꾀하게 복음의 불모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

다. 그러나 빌리 그래함 목사가 우리에게, 아니 대한민국 교회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보라. 우리 목사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점차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 남미와 아프리카가 그 나무 아래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본다. 아마도 그들도 훗날 우리가 빌리 그래함을 기억하고 기념하듯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리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했다. 6만 5천 가량이 밀집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일만 명의 연합성가대였다. 그들이 찬양한 ‘할렐루야’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늘을 뚫었고, 분명 하나님 보좌까지 울렸으리라. 참석자 모두가 기립했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날 강사는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였는데, 이분은 바로 빌리 그래함 목사의 장남이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영혼의 가치’에 대해 설교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두둑한 통장, 멋진 차, 근사한 아파트, 든든한 직장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갖는다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오직 예수 안에 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 예수님

은 우리 영혼을 찾아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당신의 영혼은 안전한가?”

사과나무 씨 안에 사과가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는 간단하게 설교를 마친 후에 50년 전 아버지 빌리 그래함이 했던 그대로 예수를 영접할 자들을 일시켜 세우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케 했다. 우리 목사님은 늘 ‘불이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신다. 팬데믹으로 교회가 침체되었다.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예전 같지 않다. 무엇이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법, 이때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예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이 불로 세상을 밝혀야 하고, 마침내는 복음의 암흑기를 사는 북한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 기념대회를 열게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다.

참석자 모두는 침체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회복을 넘어 제2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더불어 언젠가 우리 교회도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집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신모수 전도사

:: 성경에서 배운다 ::

:: 신앙에세이 ::

복음의 전쟁

얼마 전 우연히 들은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글라데시로 떠난 그는, 도착하고 나서야 인구의 90%가 이슬람교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슬림인 그들에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를 믿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 다. 선배 선교사는 여기서 평생에 무슬림 1명만 개종시켜도 선교에 성공하 는 거란 조언까지 남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 지 역을 꼭 붙잡고 있는 어둠의 진(陣)이 있다’ 는 감동이 왔습니 다. 이에 곧 이 진을 파괴 할 전도집회를 열겠다는 결심을 하고, 한 국에 단기 선교팀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열 었습니 다. 전도집회 첫날, 800명의 무슬림들이 모였 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시작하자 모든 이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 다. 그 가 운데 한 명이 일어나 “당장 마이크 꺼! 우 리를 크리스천 만들러 한국에서 온 거야? 내일도 이 집회를 하면 죽여버리겠어!”라

는 협박까지 하며 집회를 무산시켰습니 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집회를 열었고, 역시 복음을 전하자마자 돌을 던지며 반항하 는 이들로 집회장소는 난장판이 되어 버렸습 니 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버리고 모든 것 이 실패한 것 같아 운동장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던 선교사에게 문득 한 음성이 들 렸습니 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 다!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의 영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후,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첫날, 군중 속 에서 일어나 집회를 무산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 다. 그는 전과 25범으로 지역 사회에 알아주는 강패였습니 다. 배가 너무 아파서 약을 달라는 그에게 선교사는 3일 치 약을 주며 “당신은 안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 다. 아니나 다를까 약을 먹고 도 복통이 낫질 않자 다시 찾아왔고, 선교 사는 그에게 “당신은 약 먹어도 낫지 않는 다. 오직 예수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

야 한다. 지금 죽을래? 예수 믿고 20~30년 더 살다 죽을래?”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 다. 그럼에도 궁시렁거리며 약간 타가던 그는, 이후 더욱 심해진 복통으로 다시 찾아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첫 성 도가 되었습니 다. 이 고백에 복통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은 그는 열정적인 전도자 가 되었고, 전도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전도에 매진하더니 결국 그 지역에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5만 명을 개종시키는 놀라 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쟁입니다. 한 번의 예배, 집회는 흔한 행사가 아닌 크고 작은 전쟁의 선포 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전쟁에 승리해야 만 합니다. 악한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매사 모든 예배와 집회에 기도와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 하시는 목사님 이하 모든 교역자분들께 진 심 어린 감사를 보내며, 우리도 함께 중보 기도도 동참합시다! 하인명 집사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

Good News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 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 가운데 편만 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존재 를 부인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 다. 그러면 어 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 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하고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유로 한강변 고수부지에 고라니가 산다 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반신반의했습 니 다. 그런데 어느 날 고라니가 한가로이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지 나다닐 때마다 유심히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었습니 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무슨 고라니가 있느냐?”고 면박 을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여기 고 찾아보았더니만 자신도 발견할 수 있었 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 다. 지혜란 경

험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 셴으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하 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 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사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미는 손 을 뿌리치지 말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 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셔 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사람은 보통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할 까요?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하루 평 균 3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연구는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도 했습니 다. 이러한 차이는 거짓말을 어떻게 정의하 는지에 달려있습니 다. 나쁜 의도로 누군 가를 속이는 것만 거짓말인 것은 아닙니 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숨기거나 타 인의 시선이나 관계를 의식해 의례적으 로 하는 말도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 다. 가만히 살펴보면 일상에도 거짓을 말하 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 다. 사소한 거짓말 의 흔한 유형 중 하나는 핑계를 대는 것 입니 다. 늦을 때 차가 막혔다거나, 만나기 싫을 때 바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표현을 자

주 사용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부사는 없 어도 소통에 문제가 없는 말입니 다. 하지 만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하여 사용하십니 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 간이 타인을 대할 때 진실하지 않다는 반 증은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흔히 ‘페르소나’라고 하지요. 자신의 진짜 모습과 달리 사회적인 상황에서 기대되 는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 니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남에게 보여 지는 것이 중요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 클수록 본래 모습과 괴리가 큼니다. 저도 이전에 일관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 습니 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맞 추려다 보니 이해되지 않고 싫은 상황에 도 내색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마음과

는 반대로 좋은 척 행동했습니 다. 그리고 그것이 타인을 위한 배려라 생각했습니 다. 잘 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마음이 점점 힘들어졌습니 다. 이 유를 알 수 없어 기도하던 중 깨달았습니 다. 먼저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 입니 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스스 로를 속인 것이지요. 이후로는 나의 마음 부터 정직하게 직면하고 다루는 연습을 했습니 다. 총회장 목사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에 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나에게 정직하면 남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습니 다. 나의 말이 마음과 일치되었는 지 살필 때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축복 할 수 있습니 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 에 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소희

마음을 알아주다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 어주고, 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란 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자 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화났던 마 음이 누그러지고, 조급했던 마음이 차분 해지고, 만족감과 동시에 조용한 기쁨이 생겨난다. 이에 더하여 그 사람과의 관계 는 깊어지고 돈독해진다. 그래서 하나님 께서도 늘 우리 기도예, 작은 신음까지 도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 며, 참 평안을 주시는 것 같다. 얼마 전 봤던 어느 유명한 박사님의 강연 에서 소개된 부부 사이 갈등을 피하는 소 통의 비결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었다. 상 대방이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바 로 맞받아치기보다 끝까지 들어주고 핵 심을 수긍해주는 것이다. 가령 저녁식사 에서 “국이 짜네.”, “짜긴 뭐가 짜.”, “당신 입맛이 이상한 거야.”, “그럼 앞으로 당신 이 만들어 먹어.”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 게 하지 말고, “짜다는 얘기지?”라고 상 대방이 하는 말의 핵심을 알았다는 수긍 의 답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추가로 “그 렇지, 짜게 먹는 건 좋지 않지.”와 같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곁들이면 갈 등이 아닌 편안한 대화가 된다. 반면, 세상의 모든 화는 무시에서 비롯되 는 것 같다. 무시를 당한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깨진다. 심지어 복수 심에 불타올라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기 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다르더라도 누구를 무시하는 언행은 삼 가는 것이 좋다. 어쩌면 우리 구원도 마 찬가지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자는 영생이 아닌 영벌이 기다 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은 사랑의 시작 이고, 무시는 비극의 시작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 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 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 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2: 12). 박찬영 집사 post.naver.com/imsfriendly

